

진짜 사나이의 동행... “완주 임무 완수”

11공수여단 조광희·윤바로 중사 선·후임 하프코스 첫 도전 “페이스메이커 선임 덕 성공”



조광희(왼쪽), 윤바로 11공수특전여단 중사가 서로의 하프코스 완주를 축하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1절의 의미를 기려 애국정신으로 함께 달렸습니다.”

3·1절 기념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 자 함께 하는 동행의 무대였다. 나란히 하프 코스를 완주한 조광희(26), 윤바로(25)씨. 두 사람은 11공수특전여단에서 중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후임 사이다.

평소 달리기로 건강을 챙기는 두 사람은 이번 3·1마라톤을 통해 하프 코스 데뷔전을 치렀다. 조 중사는 10km 코스를 달려본 경험이 있지만 하프 출발선에 선 것은 처음이다. 윤 중사에게는 마라톤 대회 출전 자체가 처음이다.

경험 있는 선임 조 중사가 페이스 메이커가 됐다. 그는 걸음이 느려진 윤 중사를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 결승선에 함께 발을 내디뎠다. ‘동행’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조 중사는 “10km는 뛰어봤는데 하프는 처음이라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3·1절을 기념하는 대회인 데다 군인만큼

애국정신으로 뛰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을 생각해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을 내민 선임이 있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던 윤 중사에게도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윤 중사는 “혼자 뛰면 어려웠을 것인데 선임이 기다려주면서 무사히 결승선에 들

어 수 있었다”며 “포기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질주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 사위’ 응원 ‘여수택’이 뛰었다

안철수 전 대표 부인 김미경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5일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를 뛰며 ‘안홍(안철수 바람) 살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여수 출신인 김 교수는 ‘여수택’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안 전 대표의 ‘호남 사위’ 이미지를 알리는 데 특목한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월 여수에서 열린 새해 첫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3·1절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며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 교수는 “일정 때문에 하프 코스를 완주 못하더라도 코스의 절반을 뛰자는 생각으로 달렸다”면서 “평소보다 기록도 잘 나왔다”며 함박 웃었다.

그는 특히 “광주 도심을 통과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좋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마라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뛰면서도 혼자 뛰는 것이고, 혼자 뛰지만 같이 뛰는 것”이라며 “(남편이) 대선을 뛰는 마음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지만 혼자자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는 바쁜 일상 중에도 평소 달리기로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전 대표와)시간을 못 맞추면 각자 집 앞 중랑천을 뚫다”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져 금세 상쾌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라톤 완주로 애정 과시 ‘글로벌 사랑꾼’

박승호·띠엔 응웬 커플

“내년에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도심 코스를 달릴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제 커플인 박승호(30)씨와 띠엔 응웬(Thien Nguyen)(여·28)씨는 손을 꼭 잡은 채 골인 지점을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3·1절 기념 마라톤 출전을 제안한 건 띠엔씨. 남자친구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다.

띠엔씨는 “한국에서 혼자 3년 넘게 공부만 해왔다”면서 “친구이자 지상한 아

빠 같은 남자친구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다”고 대회 참가 계기를 설명했다.

이들은 함께 호흡하고 서로 다독여주면서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띠엔씨가 숨이 차오르고 다리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 할 때면 승호씨가 땀을 닦아 주고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다.

박씨는 “힘든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국적은 다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생겨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풀코스에 함께 뛰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은재기자 ej6621@



대회 즐기고 청정 전남쌀도 맛보고

홍보용 400개 10분 만에 동나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전남 쌀 많이 애용해 주세요.”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장은 내 고장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장 역할도 톡톡히 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을 비롯, 대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햅쌀 ‘나비쌀’과 무안 ‘황토랑쌀’(500g) 400개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전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전남도는 햅쌀 나비쌀, 무안 황토랑쌀

과 함께 10대 고품질 브랜드로 선정된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암 달마차쌀골드, 담양 대슬맑은쌀, 나주 드림생미,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장흥 아리미쌀, 강진 프리미엄호명, 해남 한눈에반한쌀 등도 소개하는 등 전남 쌀 소비를 촉진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전남도 관계자는 “홍보용 400개가 10분 만에 동났다”면서 “전남 쌀 홍보를 위해 3·1절 마라톤대회장에 왔다가 전남 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반응에 큰 힘을 얻어간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5·18 광장서 되새기는 태극기의 의미

광주보훈청 전시회

3·1절을 기념해 열린 마라톤대회와 함께 ‘문화재 태극기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지방보훈청은 5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문화재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전시회는 태극기가 문화재로 등 록되어 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상징인 국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자 마련됐다.

이 날 전시회에는 1919년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짊어 대령으로 빨리 제작

하기 위해 제작된 ‘태극기 목판’부터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조국의 완전독립을 염원하는 글귀를 적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한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남상락 자수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11개의 태극기가 전시됐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최근 집회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3·1절기념 마라톤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풀코스·하프코스 부문별 우승자

“첫 광주 방문 첫 우승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풀코스 남자 최병진씨

“처음 찾은 광주에서 처음 풀코스 우승을 이뤘습니다.”

남자 풀코스 우승 트로피는 구미에서 달리는 최병진(40·델코배터리)씨에게 돌아갔다.

그에게 이번 3·1절 기념 마라톤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 대회 출전을 위해 처음 광주를 찾은 그는 풀코스 첫 우승이라는 잊을 수 없는 기록까지 만들었다.

최씨는 “풀코스에서는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다. 39km 지점에서 막판 스퍼트를 해 승부수를 던졌다”며 “처음 3·1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도심과 보물 달리는 코스가 좋았다. 날씨도 좋고 최상의 대회였다”고 말했다.

20대 초반까지 육상 선수 생활을 했던 그가 다시 본격적인 질주에 나선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는 “육상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성취감이 마라톤의 매력이다”며 “회사 동호회에서 함께 뛰는 동료와 어제 광주에 왔다. 광주에 처음 왔고, 우승도 했으니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돌아갈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년간 인연 맺은 3·1 마라톤 부상 중 얻은 우승 더 의미”

풀코스 여자 이정숙씨

“우승도 기쁘지만 완주를 해했다는 점에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3·1절 기념 마라톤의 단골 우승자 이정숙(52·천안)씨가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그는 6초 차로 아쉽게 여자 풀코스 6연패에 실패했다. 레이스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우승 타이프를 끊지 못했던 이씨는 이번에는 압도적인 질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지난 2008년 하프 우승으로 3·1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뒤 풀코스 최강자로 자리를 지켜왔다.

부상 투혼으로 이룬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다.

이씨는 “앞서 출전한 충남 역전대회에서 종아리 근육을 다쳐 연습을 하지 못했다. 완주를 목표로 마음을 비우고 다리 상태에 집중해 달렸다. 처음부터 천천히 뛰었는데 중간에 한번 근육이 올라와서 위기가 있었다”며 “서브 3를 목표로 하는 다른 참가자와 호흡을 맞춰 달렸다는 점도 좋았다. 3·1 마라톤은 내게 특별하다. 다시 우승을 해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스 매력 취한 게 우승 비결 내년에는 풀코스 도전”

하프코스 남자 박홍석씨

“하프 마라톤 우승을 동력 삼아 내년 대회에서는 풀코스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거제에서 먼 길을 달려온 박홍석(29)씨는 1시간 10분 51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남자 하프코스 결승선을 통과했다.

출발 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선두자리를 지키는 눈부신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지난해 3·1절 기념 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찾은 경험이다. 지난해에는 풀코스에 참가해 3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하프코스에도 도전, 두 번째 도전 끝에 3·1 마라톤 우승을 차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열린 마라톤대회는 쌀쌀한 날씨에 어렵게 레이스를 펼쳤지만 3등을 차지하고 기분 좋았다. 올해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기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하프코스에도 도전했다”며 “개인적으로 새벽 3시에 출발한 탓에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광주 도심을 달리는 코스에 취해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인심 좋고 사람 좋은 광주 광주일보 덕에 좋은 경험”

하프코스 여자 이선영씨

“코스는 다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차지해 정말 기쁩니다.”

1시간 24분 41초의 기록으로 제5회 3·1절 기념 마라톤대회 여자 하프코스 결승선에 들어온 이선영(40·경기도 부천)씨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지난해 풀코스 우승자였던 그는 이번에는 하프코스 우승자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마라톤 경력만 10년이 넘는 그는 지난해에도 일본 동경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등 달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실력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그는 시원한 질주로 우승 경력을 더했다.

이씨는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까지 다녀온 탓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풀코스를 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올해는 마라톤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였다. 비록 풀코스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3·1절 마라톤 덕에 인심 좋고, 사람 좋은 광주에서 좋은 경험을 쌓은 것 같아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